

##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증설 검토

삼성전자(대표 권오현)는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수요증가에 대비해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월21일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은 오스틴 주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8월에도 한국거래소로부터 오스틴 사업장의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투자와 관련한 조희공시를 요구받고 “생산라인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2/11/22>